첨단 전자산업의 대표주자 - LG전자

전화, 라디오, TV, 냉장고, 에어컨 등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만큼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수용품 목록에 이들 전자제품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산골 깊숙한 농가마을에도 일반 유선 전화기는 물론 휴대전화 한 대쯤은 다 갖추고 있어 농사일을 하면서도 멀리떨어져 사는 가족과도 수시로 안부를 주고 받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또 우리나라 거의 모든 가구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안방에서 편리하게 볼 수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여름엔 냉장고, 에어컨으로 찜통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

LG전자는 이처럼 우리 생활에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는 전자제품 생산에 많은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는 기업이다.

LG전자는 1958년 금성사로 우리 생활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왕관모양하면 금성, 이 마크가 우리 머리 속에서 지울래야 지울수 없게 된 것은 지난 '59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를 개발한데 이어, '62년, '65년도에 각각 전화기와 냉장고를 국내최초로 생산해 전자업계와 우리생활에 커다란 바람을 일으키게 된 때 부터일 것이다.

이렇게 국내최초라는 꼬리표를 이어 달면서 한국 전자산업의 싹을 틔운 LG전자는 지난 40여년간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전자회사로 성장하여 왔다.

LG전자의 성장과정을 크게 나뉘어보면 LG전자의 창업의 시기, 성장의 시기, 국제화 시기, 혁신의 시기, 제 2의 혁신의 시기로 나뉠수 있다.

'66~'77년까지 10여년동안은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다짐으로써 이때를 성장의 시기로 볼수 있는데, 최초로 해외지사를 뉴욕에 설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자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해 전 국민들에게 LG에 대한 당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또한 구미공장과 창원공장을 각각 '75년과 '76년에 준공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77년말에는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LG의 위력을 과시했다.

'78~'86까지 9년동안 국제화시기를 맞이해서는 세계 유수한 기업들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첨단기술의 개발과 함께 김해공장과 평택공장의 준공, 독일 생산법인의 설립, 전자업계 최초로 수출 1억불 돌파라는 호조를 이루었으며, 이어서 매출

1조원 돌파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편, LG는 '87~'94년까지를 혁신의 시기라고 말한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Zenith와의 전략적 제휴, 세계화에 발맞추기위한 아일랜드 현지 디자인연구법인 설립, 국내최초 가전 수출 20억불 돌파, 중국시장의 진출 등은 LG전자에서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전업계에서도 혁신의 시기라고 말할만큼 그 성과와 업적은 대단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소비자를 위한 끊임없는 제품개발과 지금까지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95부터 제 2의 혁신의 시기를 만들어 좀더 좋은제품, 생활에 편리를 더하는 참신하고도 기술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이때 그동안 금성사로 회사명을 쓰고 있었던 것을 LG전자로 변경('95)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개인 휴대정보단말기 PDA 개발, 세계최초 유럽규격의 28인치 디지털 위성 TV공급, 개시 등 새로운 신기술을 속속개발해 세계속의 한국을 빛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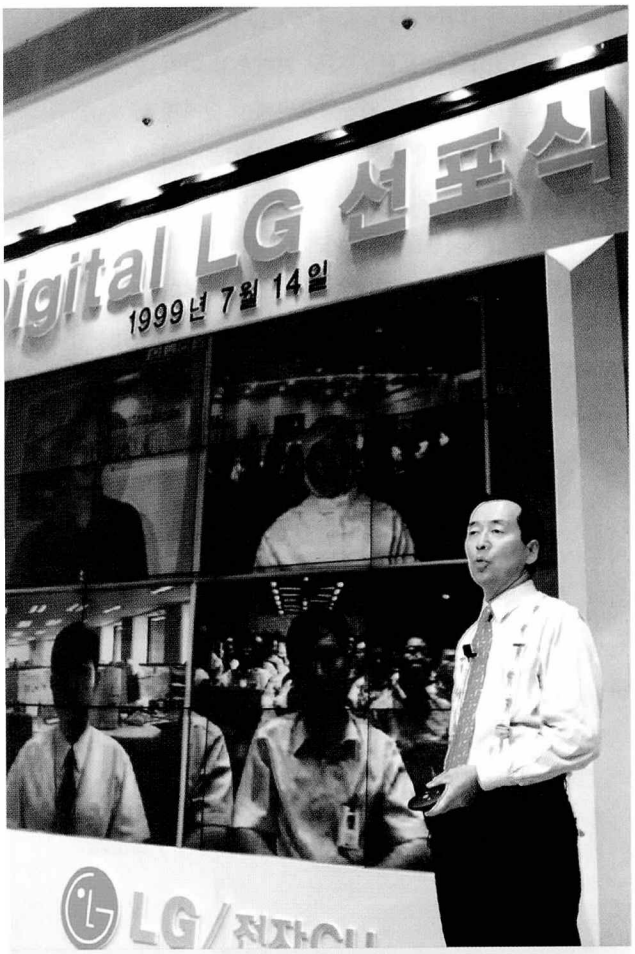
새로운 도약의 시기인 만큼 이때의 매출액도 '96년도에는 75,025억원, '97년도엔 92,397억원, '98년도엔 98,528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51,377억원으로 벌써 50%가 넘는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렇게 목표액이 늘어난데 비해 인원수는 34,525명에서 24,000명으로 줄어들어 목표액의 달성도는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영이념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이 슬로건은 TV나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 우리귀에 꽤 익숙해져 있는 문구다.

LG전자는 "고객을 모든 사업의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며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것을 사업운영의 기본목적(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으로 삼아 왔으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가치의 원천이므로 인간을 존중하여 각자가 스스로의 판단으

로 자기실현을 할 수 있게 인간존중의 경영이념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LG전자의 노(勞)사(社)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勞)와 사(社)라는 수직적 체계를 뛰어넘어 노(勞)와 경(經)이라는 수평적 관계를 정립해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해, LG전자가 갖고 있는 노(勞)경(經)관계를 경쟁력의 밑거름으로서 생각해 왔다. 그래서 '공동체적 노경관계'를 뛰어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치창조의 노경관계'로, 회사와 직원이 하나가 되어 LG전자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자산업발전해 이바지해 나가고 있다.



LG/전자CU는 7월 14일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디지털LG」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은 구자홍 부회장이 PC화상으로 전국에 있는 사업장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세상을 바꾸는 힘 -디지털 LG

LG전자는 올해를 디지털 시대의 원년으로 삼아, LG전자의 디지털기술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백화점 세일기간에는 구자홍 부회장이 직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TV와 벽걸이 TV등 LG전자의 디지털 제품을 직접 소개하는 등 홍보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LG전자는 올해부터 인사고과도 디지털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디지털방식의 인사고과는 본인이 직접 업무에 대한 목표설정, 평가 등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상사는 이를 열람하고 평가해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만약 상사가 목표설정 등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재발신해 수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LG전자는 모든 업무를 하나에서 열까지 디지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생활을 쉽고 편리하게 할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새 천년 경영사상인 '디지털 LG' 비전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LG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디지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로 도약키 위한 새 천년 경영사상으로 지난 6월 '디지털 경영'을 밝힌 바 있는 LG/전자CU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디지털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디지털 LG 선포식'을 계기로, '디지털 경영'이 단순한 관행이나 문화혁신이 아니라 전면적인 '탈바꿈'을 통해 CU내 각 회사의 조직문화와 경영시스템, 사업구조 등을 변혁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리더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활동을 통해 1년후인 2000년

중반에는 디지털 문화가 조직내에 뿌리내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선포식을 통해 구자홍 부회장은 '디지털 LG'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인류의 삶을 더욱 흥미롭고 편리하게 하는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경영의 리더쉽을 구현하는 기업이 되자"는 장래상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구부회장은 디지털 경영에 대한 경영구상을 밝히는 이날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디지털이다"라고 밝힌 뒤 "디지털은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디지털 방송시대를 겨냥해 LCD 액정 TV, 플라즈마(PDP) 벽걸이 TV, 디지털TV, 디지털방송 대응 프로젝트 TV, 완전평면 TV, LCD프로젝터 등 신기능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이렇게 LG전자가 디지털전자제품에 주력해오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제품이야말로 새 천년에 전자업계의 커다란 판도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최고의 상표 - 'LG전자'를 향하여

올 '99년에는 '재무구조 혁신' '핵심역량 강화' '성과주의 정착'을 3대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Risk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재무구조의 혁신」이라함은 '98년은 한계 · 부진 사업 정리 및 비효율 제거 차원의 사업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99년에는 재무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 나가는 것이고, 「핵심역량 강화」는 승부사업 및 주력사업의 신제품 개발력 및 사업화에서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선진 수준의 사업역량을 확보,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과주의 정착」은 '정도경영에 의한 성과주의 정착'이라는 보다 혁신적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함으로써 참다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라고 LG측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의 사업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사업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승부사업과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신제품 개발력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최고의 상표 'LG전자'를 만들기에 LG전자 온가족은 힘과 기술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21세기 전자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한 디지털 기술관련 산업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디지털 TV, PDP TV 분야를 승부사업으로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LG전자는 승부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사업분야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새 천년의 첨단 전자산업을 대표하고자 하는 '디지털 LG'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으서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